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November 2025 Issue | Vol. 77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환태평양 무역 협정 가입 공식 신청 — page 1-2
- 한국 연구자 “필리핀, 생산자들이 FTA 혜택 인식하도록 지원해야” — page 2-3
- 관세 부담 속 아시아가 흔들리는 가운데, BSP 관계자 “필리핀의 경쟁 우위 강조” — page 3-4
- BSP, 50만 페소 현금 인출 규정 명확히 밝혀 — page 4-5
- 코넥타동 피노이 규정이 발표됐다 — page 5-6
- 에너지부, 170MW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1월 26일 입찰 준비 — page 6
- 필리핀 의류 수출, 올해 10억 달러 돌파 전망 — page 7

UPCOMING EVENT

- [Nov 24, 2025] 2025년 KCCP 크리스마스 파티 — page 8
- [Nov 27, 2025] 제20회 JFC 네트워킹 나이트 — page 8

필리핀, 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환태평양 무역 협정 가입 공식 신청

November 05, 2025 | Dexter Barro II | Manila Bulletin

필리핀이 잠재적인 역풍 속에서도 자국 산업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필리핀이 CPTPP의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무역산업부(DTI) 알란 켈티 차관은 11월 5일 수요일, *마닐라 볼티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난 8월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블록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필리핀의 협상 일정과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가입 가능 시기에 대한 질문에 켈티 차관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CPTPP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유무역지대 중 하나로, 5억 명이 넘는 인구와 1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대표한다.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 환경, 광범위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그리고 개선된 투자 촉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CPTPP 회원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영국(UK) 등 12개국이다.

지난 7월, 크리스티나 로케 무역산업부(DTI) 장관은 필리핀이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케 장관은 시장 접근성 확대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한 역풍으로부터 국내 산업, 특히 수출업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필리핀의 대(對)미국 수출품 대부분은 현재 19%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필리핀수출자협회(Philexport)는 올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이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1,050억~1,1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필리핀 개발계획(PDP) 2023~2028’에서 제시한 2025년 수출 목표액 1,134억 2천만 달러와 ‘필리핀 수출개발계획(PEDP) 2023~2028’의 목표치인 1,63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필리핀통계청(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557억 1천만 달러) 대비 13% 증가한 630억 2천만 달러로, 9개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한 달간 상품 수출액은 72억 5천만 달러로, 미국이 11억 1천만 달러로 최대 수출 시장을 차지했다. [Cont. page 2]

필리핀, 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환태평양 무역 협정 가입 공식 신청

[Cont. from page 1]

필리핀상공회의소(PCCI)는 앞서 CPTPP 가입이 “개방적 시장을 지향하는 역동적인 경제권과의 통합을 한층 심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CCI는 지난 9월 성명을 통해 “이 협정 가입은 필리핀에 고품질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가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의 가입 규정에 따르면, 신규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은 뒤 국내 정책 조정 등을 포함한 장기간의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https://mb.com.ph/2025/11/05/philippines-formally-applies-to-join-trans-pacific-trade-pact-to-expand-market-access>

한국 연구자 “필리핀, 생산자들이 FTA 혜택 인식하도록 지원해야”

November 05,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국 수출업체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 한국 연구자가 밝혔다.

산업연구원(KIET) 김계환 선임연구위원은 FTA 체결이 자동적으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은 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성, 공급망 준비도,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FTA를 단순한 관세 인하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협력과 가치사슬(밸류체인) 재편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2024년 말부터 발효된 한-필 FTA에도 불구하고, 수요 변화, 유사한 경쟁국과의 경쟁, 공급망 요인, 그리고 품질 문제가 필리핀의 대한(對韓) 수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통계청(PSA)에 따르면, 올해 1~9월 동안 필리핀의 대한민국 수출은 15% 감소한 2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2% 증가한 77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필리핀이 FTA 홍보 외에도 제품 다양화, 브랜드 품질 향상, 물류 및 공급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가치사슬 개발, 서비스 및 기술 협력 확대, 시장 및 제품 다변화, 정부 지원 강화, 그리고 양자 협력 플랫폼 구축을 권고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필리핀 기업들이 협력해 한국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농식품 가공,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농업, 식품가공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통해 필리핀의 수출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필리핀이 위험 분산을 위해 대한민국 수출 품목 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 외에도 “전기·전자 부품, 광학·의료기기, 가공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수산물 및 해양제품, 가공 해산물, 원자재” 등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제안했다.

[Cont. page 3]

한국 연구자 “필리핀, 생산자들이 FTA 혜택 인식하도록 지원해야”

[Cont. from page 2]

김 연구위원은 국제 무역과 투자가 채편되면서, 결국에는 “다극 체제(multipolar order)”로 전환될 것이며 이는 일종의 강대국 경쟁 구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규모 내수시장을 가진 주요 국가들이 규모의 경제를 자국 시장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필리핀과 같은 신흥국 또는 중견국은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무역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모의 경제는 중견국들이 각자의 독립적인 역할을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따라,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11/05/710390/phl-must-help-producers-become-aware-of-fta-benefits-korean-researcher-says/>

관세 부담 속 아시아가 흔들리는 가운데, BSP 관계자 “필리핀의 경쟁 우위 강조”

November 06, 2025 | Mary Jade Gale Jadormio | BusinessMirror

미국이 주도한 관세 분쟁의 여파 속에서도,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의 송금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에서의 수입이 필리핀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중앙은행 관계자가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제노 로널드 R. 아베노하(Zeno Ronald R. Abenoja) 부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개최된 한 포럼에서 “필리핀의 경제 구조는 다른 국가들과 매우 다르다”며, 필리핀의 수출입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5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Bangko Sentral ng Pilipinas

아베노하 부총재는 “이 적자가 당장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투자에 의해 발생한 적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성과 잠재 생산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필리핀 경제의 회복력은 무역 이외의 주요 부문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 주최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전망 웨비나에서, 아베노하 부총재는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들의 송금이 국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계 소비를 유지시키는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노하는 “송금의 이타적 성격이 글로벌 경기 변동 속에서도 필리핀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부문이 여전히 고용과 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BPO 산업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적응하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 부문은 AI 도입을 통해 중기적으로 연평균 5% 수준의 수익 및 고용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양한 성장 동력

아베노하 부총재는 관광 수입 또한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 수요 증가가 서비스 중심 산업을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가 발표한 ‘2025년 경제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필리핀의 관광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 5조 9천억 페소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9년 대비 13.5%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고 기록이다.(출처: WTTC 공식 발표)

[Cont. page 4]

관세 부담 속 아시아가 흔들리는 가운데, BSP 관계자 “필리핀의 경쟁 우위 강조”

[Cont. from page 3]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는 이번 “사상 최고 기록”이 국내총생산(GDP)의 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산업이 “필리핀 경제의 중추(backbone)”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약 5%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개혁, 자본 동원, 인적 자원 개발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인도네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레자 앙글링쿠수모(Reza Anglingkusumo)는 “자카르타는 중산층 성장을 지속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저축을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 전반이 참여하는 ‘전 국민 접근 방식(whole-of-nation approach)’을 통해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로라 브릿-페르모(Laura Britt-Fermo) 부국장이 전했다.

페르모 부국장은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ohor-Singapore Special Economic Zone)”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인프라와 노동력 계획의 긴밀한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를 통해 상품과 숙련 인력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관세 충격 속 아시아의 대응

아베노하 부총재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경제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 주에 단행한 관세 정책의 여파로 아시아 지역이 그 영향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무역 긴장이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중앙은행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외 요인들이 향후 몇 분기 동안 필리핀의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싱크랭크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롤랜드 라자(Roland Rajah)는 “세계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여전히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기반은 대체로 견고하다”고 분석했다.

라자는 “중국의 대미 수출은 35~50% 급감한 반면, 아세안의 수출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 캄보디아 사무소의 이코노미스트 밀란 토마스(Milan Thomas)는 자체 모델 분석 결과, 미국의 관세 시나리오하에서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영향이 적은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마스는 “필리핀은 서비스 중심의 경제 구조와 낮은 대미 수요 의존도 덕분에 관세 충격에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계·전자제품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한 베트남은 관세 영향에 더 노출되어 있지만, 필리핀은 대규모 서비스 부문 덕분에 혜택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토마스는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무역 구조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이 약 ±1%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Image credits: [Michael Edwards / Dreamstime](#)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1/06/bsp-exec-cites-phls-edge-as-asia-grapples-with-tariff/>

BSP, 50만 페소 현금 인출 규정 명확히 밝히

November 06, 2025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In a memorandum issued by the BSP's Financial Supervision Sector, the central bank released a set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to address public confusion and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Circular 1218, which took effect on Oct. 7. Businessworld / File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최근 발표한 고액 현금 거래 관련 새로운 규정이 인출 한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예금자와 기업이 50만 페소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정당한 서류와 합법적인 목적이 뒷받침된다면 여전히 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SP 금융감독부는 **10월 7일부터 시행된 제1218호 회람(Circular 1218)**의 정확한 이해와 일관된 적용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 문서를 배포했다고 전했다.

BSP는 “이번 새로운 규정은 고객이 자신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조치는 합법적인 민간 기업 및 정부 관련 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금융 접근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병원비 납부 증빙서류나 사업 거래 관련 서류 등 신원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50만 페소 이상의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5]

BSP, 50만 페소 현금 인출 규정 명확히 밝혀

[Cont. from page 4]

제1218호 회람(Circular 1218)에 따르면,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감독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은 하루 50만 페소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BSP는 정기적으로 대규모 인출을 수행하는 고객의 경우, EDD 절차를 사전에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거래가 고객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BSP는 “고객 현금 지급이나 거래가 고객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EDD를 주기적 또는 단순화된 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인출이 일반적인 사업 활동 및 위험 프로필과 일치한다면, 매 거래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BSP는 하루 동안 여러 지점이나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인출을 하는 고객의 경우에도, 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체 거래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면 사후(事後) EDD 수행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계좌 및 지점 간의 활동을 통합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탐지해야 한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50만 페소 기준선(threshold)은 하루 동안 발생한 현금 거래 총액에 적용되며, 폐쇄화 및 외화 인출 모두 포함된다. 또한 공동계좌, 수탁계좌(“for the account of”), 신탁계좌(“in trust for”)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BSP는 이번 정책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자금조달(proliferation financing)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금 기반 거래가 여전히 불법 자금의 금융시스템 유입·유출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접근 방식은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의 지연이나 중단 없이 결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BSP는 강조했다.

또한 BSP는 이번 규정이 재난 지역의 현금지원금 지급이나 긴급 인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례의 대규모 현금 지급은 적절한 서류로 증빙될 경우 여전히 가능하다.

제1218호 회람은 9월 18일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Board)의 승인을 받았으며, 은행들이 50만 페소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자금이 추적 가능한 수단(계좌이체, 수표, 디지털 결제 등)을 이용하도록 고객에게 권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1/06/2485081/bsp-clarifies-p500000-cash-withdrawal-rule>

코넥타동 피노이 규정이 발표됐다

November 06, 2025 | Elijah Felice Rosales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정부가 ‘코넥타동 피노이법(Konektadong Pinoy Act)’의 시행규칙(IRR)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최대 15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입될 길이 열렸다.

정보통신부 헨리 아구다(Henry Aguda) 장관은 어제, 법 제정 후 90일 이내에 시행규칙을 발표해야 하는 법정 기한에 앞서 이미 IRR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구다 장관은 또한, 이번 시행규칙은 공동 시행 기관들의 추가 서명 절차를 거친 뒤, 일반 일간지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7개의 데이터 전송 산업 사업자(DTIPs)**가 IRR 발효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포 후 15일이 지나 시행되면 이들과의 필리핀 시장 진출 관련 공식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구다 장관은 이번에 관심을 보인 **데이터 전송 산업 사업자(DTIPs)**들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필리핀의 광대역 인터넷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업자는 위성통신과 같은 신규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은 광대역 등 기존 통신 인프라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구다 장관은 또, 이러한 DTIP들이 통신망 연결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기지국과 셀타워 건설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6]



File photo of a laptop user with graphics representing Wi-Fi connection.

Image by methodshop from Pixabay

코넥타동 피노이 규정이 발표됐다

[Cont. from page 5]

데이터 부문에서,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전국적으로 최대 10만 개의 통신탑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약 15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구다 장관은 DICT가 네트워크 가용성이 부족한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낙후된 지역에 디지털 인프라 타워 프로젝트(DTIP)의 투자가 집중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약 3만 개의 통신탑이 운영 중이지만, 아구다 장관은 이는 모든 필리핀 국민의 연결성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임기(2028년 종료)가 끝나기 전까지 이 수치를 최소 3배로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때 통신 업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코넥타동 피노이 법(Konektadong Pinoy Act)’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입법 프랜차이즈 취득 없이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을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구다 장관의 지도 아래, DICT는 2028년까지 인터넷 요금을 50% 인하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이와 더불어, 코넥타동 피노이 법은 ‘디그 원스(Dig Once)’ 정책을 도입하여, 통신사들이 도로 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케이블 공사를 사전에 계획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1/06/2485080/konektadong-pinoy-rules-out>

에너지부, 170MW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1월 26일 입찰 준비

November 06, 2025 | Alena Mae S. Flores | Manila Standard



에너지부(DOE)는 총 170메가와트(MW)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WTE) 프로젝트 입찰을 위한 참조 조건 초안(draft terms of reference)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2028년까지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DOE는 2026년 1월에 WTE 프로젝트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WTE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열, 전기 또는 연료로 전환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의미하며, 다양한 공정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DOE가 발표한 ‘제6차 녹색에너지 입찰(Green Energy Auction 6, GEA 6)’의 초안 지침에 따르면, 이번 특별 입찰 라운드는 열 연소(thermal combustion)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로 도시화된 도시(Highly Urbanized Cities, HUCs) 또는 지자체(LGUs)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MSW)을 처리하는 WTE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에너지부(DOE)는 전력망과 생활폐기물(MSW) 발생지를 기준으로 구분된 설치 목표(installation target)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루손 및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Lot 1, △비사야 지역의 바콜로드와 세부를 포함한 Lots 2A 및 2B, △민다나오 지역의 카가얀 데 오로와 기타 지역을 포함한 Lots 3A 및 3B로 나뉜다.

녹색에너지 입찰(GEA)에서 낙찰된 재생에너지 기술의 전력 공급 기간은 에너지 규제위원회(ERC) 결의 제16호(2010년 시리즈)에 따라 25년으로 설정된다.

다만 DOE는, 낙찰자는 유효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운영 계약(Biomass Energy Operating Contract) 또는 폐기물 에너지화 운영 계약(Waste-to-Energy Operating Contract, WTEOC)이 체결되어 있어야만 녹색에너지 요금제(Green Energy Tariff, GET)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낙찰자는 해당 도시(Highly Urbanized City, HUC) 또는 지자체(LGU)로부터 자사의 WTE 프로젝트에 필요한 폐기물 원료(feedstock)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입찰 제안은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최저가부터 최고가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며, 각 구역(lot)별 설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낮은 입찰가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DOE는 “신형 재생에너지 기술로서 WTE 프로젝트 개발은 고형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 완화 및 추가적인 청정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이라고 밝혔다.

국가폐기물관리위원회(NSWMC)의 2024년 생활폐기물 발생 데이터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 및 고도 도시화 지역(HUCs)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약 612만 미터톤으로, 이는 기저부하 전력 335메가와트(MW)에 해당한다.

DOE는 이번 조치가 필리핀 에너지 계획(PEP)의 목표와,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 내 재생에너지 비중 35%, 2040년까지 50% 달성이라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DOE는 이어 “GEA 체계 내 WTE 프로젝트의 통합은 에너지 안보 확보, 환경 보호, 그리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려는 에너지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664763/doe-prepares-january-2026-auction-for-170-mw-waste-to-energy-projects.html>

필리핀 의류 수출, 올해 10억 달러 돌파 전망

November 07,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미국 관세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의류 수출 올해 10억 달러 달성 전망

마닐라, 필리핀 — 미국이 필리핀산 의류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의류 수출액이 올해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필리핀 해외 바이어 협회(FOBAP)가 밝혔다.

FOBAP 회장 로버트 영(Robert Young)은 <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체제 시행 초기에 가속화된 의류 선적(push-outs) 덕분에 10억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이 필리핀산 제품에 부과한 19% 관세는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영 회장은 관세가 수출업체에 도전이 되지만, 의류 수출업체들이 바이어들과 특별한 관세 분담 임시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수출업자와 구매자가 관세 부담을 나눕니다.

일부 미국 바이어들은 수출에 부과되는 세금을 100% 부담하기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업계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협상을 다시 해야 합니다.” 라고 영(Young) 씨는 말했습니다.

관세 분담 제도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은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 관세 시대 이전에도, 필리핀 의류 수출품 가격은 이미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등 다른 국가보다 높았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기료를 포함한 필리핀 내 사업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의류 수출업자들이 관세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6년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영 씨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수출은 5억 4,40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억 2,053만 달러보다 4.5%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의류 수출업자 연합회(Confederation of Wearable Exporters of the Philippines)에 따르면, 지난해 의류 수출은 6억 6,175만 달러로 전년 7억 563만 달러보다 6% 감소했습니다.

알란 겐티(Allan Gepty) 무역차관은 정부가 필리핀 수출품에 부과되는 19% 관세 관련 미국과의 협상이 내년까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의를 기준으로, 내년까지 이 문제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1/07/2485345/philippines-apparel-exports-hit-1-billion-year>



“There’s a big possibility to reach \$1 billion mainly due to the push-outs or accelerated garments and apparel shipments that started happening in the beginning of the tariff regime,” FOBAP president Robert Young told The STAR.

STAR / Fil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KCCP), Inc.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ree, Salcedo Village, Makati City
Tel No.: (632) 8885-7342
E-mail: info@kccp.ph
Website: www.kccp.ph

[UPCOMING EVENT]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KCCP)는 오는 2025년 11월 24일 마카티 스포츠 클럽(Makati Sports Club)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함께할 스폰서(테이블 스폰서 또는 경품 스폰서)를 초대합니다.

이번 즐거운 행사는 한국과 필리핀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 시즌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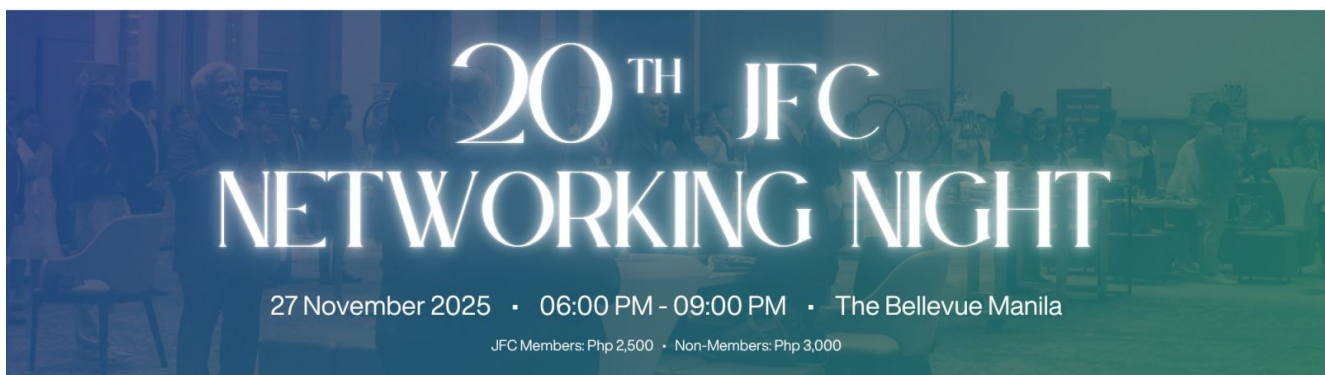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Ms. Chi / Ms. Sang

전화: +632-8885-7342

휴대폰: 09178015920 | 09158887296 (Viber 및 KakaoTalk 모두 가능)

THE JOINT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AMCHAM • CANCHAM • ECCP JCCPI
• KCCP • PAMURI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